

『중소연구(中蘇研究)』를 통해 본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

조영남*

서울대학교

우리는 중국과 소련에 관한 대표적인 학술잡지인 『중소연구(Sino-Soviet Affairs)』를 검토함으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중국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분야의 변화를 살펴보자. 한국에서의 중국 연구는 소련이나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중국을 동구나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베트남과 북한-와 비교 검토하는 연구가 매우 적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후에 연구 대상 국가의 다변화 즉 중국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연구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중국 그 자체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도 연구 분야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중국 연구는 주로 정치, 외교,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이에 비해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루어졌다. 다음으로 중국 정치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발전-연구 분야의 다각화와 전문 연구자의 확충 등-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연구 과제도 많다. 예를 들어, 중요한 정치적 사건-문화대혁명, 천안문 사건(1989년)-에 대한 연구, 변화된 정치 구조에 대한 연구, 정책결정에 대한 연구, 소수민족문제에 대한 연구,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 등도 필요하다.

둘째,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를 살펴보자. 한국에서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대개 미국, 한국, 대만-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주로 미국과 대만-에서 학문적인 훈련을 했다. 즉, 한국의 연구자들은 학문적 훈련이 다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연구 집단들은 지난 연구 과정에서 연구 접근법과 연구 주제 선택, 자료의 이용 면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서로 융합되기도'라는 독자적인 흐름을 형성해왔다. 그 결과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는 어떤 하나의 뚜렷한 흐름을 형성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연구 방법론과 자료 이용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에서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즉, '전통적 방법론'-역사적, 서술적 접근법-과 '과학적 방법론'-사회과학적인 접근법-으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자료 이용과 관련해서는, 1980년대까지는 주로 미국의 연구서나 중국의 공식 간행물에 의존해서 연구를 수행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상황-한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은 1992년의 일이다-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후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현지 조사 작업 등을 통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에 근거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I. 서 론

*지면 관계상 참고 문헌은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대신 각주로 처리했다.

이 글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이루어진 중국 정치 연구 동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중소연구(中蘇研究)』를 선택했다. 『중소연구』는 1975년(1호) 창간되어 1996년 현재(통산 68호)까지 계속 발간되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중국 및 소련에 대한 전문 학술지라고 할 수 있다.¹⁾ 『중소연구』가 갖는 이런 위상으로 인해, 우리는 이 잡지에 실린 중국 정치에 대한 연구 논문과 연구자를 분석함으로써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중국 정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²⁾

이 글에서 검토할 내용과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필자는 『중소연구』에 실린 논문들의 연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나를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중소연구』에 실린 전체 논문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위 잡지에 논문을 실은 연구자들의 출신 국가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정치에 대한 논문들의 연구 주제는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또 한국에서 중국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의 최종학위 취득국가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제 II 장은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필자는 중국 정치에 대한 '접근법(approaches)'과 연구 방법론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에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접근법의 변화가 발견되는가, 만약 발견되면 그 변화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 검토 과정에서는 미국에서의 연구 접근법의 변화를 참고로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한국의 연구자들은 자료(data) 수집과 관련하여 그 동안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제 III 장은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제 IV 장에서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한국의 학자들은 그 동안 주로 어떤 자료를 이용했나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할 것인데, 우선, 이용 자료의 전체적인 변화 추세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런 추세를 구

¹⁾ 『중소연구』는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다. 처음에 『중소연구』는 『중국문제』라는 이름으로 1975년에 창간되어 1979년까지 통산 8호를 발간했다. 그리고 1979년 6월 『소련연구(蘇聯研究)』 창간호가 밤간되었는데, 이후 1980년 6월부터 이 두 잡지는 『중소연구』로 통합되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²⁾ 『중소연구』를 통해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를 검토하려는 이 글에 대해 '대표성과 일반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중소연구』가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를 검토하는데 적당한 학술지나 하는 문제와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 전반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자에 대해 필자는 『중소연구』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이 잡지가 한국에서의 중국(과 소련) 연구를 대표하는 학술지라는 근거에서다. 그러나 후자의 '일반성 문제'는 이 논문의 성격상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잡지에 실린 연구가 한국에서의 전체 연구를 포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잡지에 실린 연구 논문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중국정치 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유팽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논문 네 편을 선정하여, 그런 녺문들이 사용한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한편, 이 글은 『중소연구』(통권 1호에서 8초까지는 『중국문제(中國問題)』) 통권 1호(1975)에서 통권 67호(1995년 가을)까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한양대학교(漢陽大學校) <중소연구소>에 대한 내용은 중소연구소 편, 『중소연구20년사』(중소연구소, 1994)를 참고했다.

II. 중국 연구 분야의 변화

중국 연구 분야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첫째는 『중소연구』에 실린 전체 논문들의 연구 분야 변화에 대한 검토다. 둘째는 『중소연구』에 실린 중국 정치 관련 논문들의 연구 분야 변화에 대한 검토다. 첫번째 검토는 두번째 검토를 위한 기초 작업의 성격을 띤다.

1. 중국 연구 분야의 변화

<표-1>은 『중소연구』에 실린 논문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들을 분류한 것이다. 표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표-1> 『중소연구』 전체 논문의 연구 대상 국가별 분류

(단위: 국가 수 / %)

國家 시기	중 국	대 만	홍 콩	中 臺	中 蘇	中 北	中 韓	中 美	中 日	中 東 歐	中 亞 世 亞	中 유 럽	북 한	소 계
1975-1980	42 60.87	0 0	0 0	0 1.45	1 0	0 2.90	2 2.90	2 1.60	1 1.60	0 0	0 0.80	0 0.80	4 5.80	52 -
1981-1985	40 32.0	6 4.80	1 0.80	0 0	6 4.80	3 2.40	1 0.80	2 1.60	2 0	0 0	1 0.80	1 0.80	1 0.80	64 -
1986-1990	42 28.77	3 2.05	0 0	0 10.27	15 0.68	1 0.68	1 0.68	1 0.68	1 0	0 2.05	3 1.37	2 0.68	1 0.68	70 -
1991-1995	55 33.13	7 4.22	1 0.60	3 1.81	12 7.23	0 0	2 1.20	1 0.60	1 0.60	0 0	0 0	0 0	10 6.02	92 -
小計	179 35.38	16 3.16	2 0.40	3 0.60	34 6.72	4 0.79	6 1.19	6 1.19	5 0.99	0 0	4 0.79	3 0.60	16 3.16	278 -

國家 시기	소련	蘇韓	蘇北	蘇日	蘇美	蘇아시아	蘇동구	蘇유럽	亞洲	기타	소계	총계
1975~1980	8	0	1	0	0	0	0	0	0	8	17	69
	11.59	0	1.45	0	0	0	0	0	0	11.59	-	100
1981~1985	40	1	1	0	0	2	0	1	0	16	61	125
	32.0	0.80	0.80	0	0	1.60	0	0.80	0	12.8	-	100
1986~1990	41	9	1	0	1	1	0	2	1	18	76	146
	28.08	6.16	0.68	0	0.68	0.68	0	1.37	0.68	12.33	-	100
1991~1995	21	10	3	0	1	0	0	0	13	20	74	166
	12.65	6.02	1.81	0	0.60	0	0	0	7.83	12.05	-	100
小計	110	20	6	0	2	3	0	3	14	62	228	506
	21.74	3.95	1.19	0	0.40	0.59	0	0.59	2.77	12.25	-	100

註 : 1) 위 통계는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를 분류한 것이다. 예를 들어, '中韓'의 경우는 그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한국'이라는 의미다. '中韓'의 경우 연구 내용은 '兩國의關係'일 수도 있고, 아니면 '兩國에 대한 比較'일 수도 있다.

2) '기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맥스-레닌주의 등의 사상 연구, 미국, 일본, 한국 등 중국과 소련을 제외한 나쁜 국가에 대한 연구,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의 중국(한국)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 등.

3) 1975~1980년 사이에 중국 연구 논문이 소련 연구 논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1975년 1호에서 1979년 8호까지 『중국문제』라는 제호로 중국 관련 논문들이 집중적으로 실렸기 때문이다.

첫째, 전체 연구 대상 국가 중에서, 중국과 소련 각각을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이 57%를 차지하여, 다수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소련 두 나라를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6.72%)까지 더하면, 전체 연구의 약 65%가 중국과 소련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과 소련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이 많은 이유는, 『중소연구』가 중소 전문 학술지라는 특성 때문인 것 같다.

한편, 중국과 소련 각각에 대한 연구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중국에 대한 연구 논문 비율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전체 논문의 약 30% 정도로 꾸준하게 실리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전보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986~90 시기의 28.77%에서 1991~95 시기의 33.13%). 이에 비해 소련에 대한 연구 논문은 1990년대에 들어 급속히 감소(1986~90 사이 28.08%에서 1991~95 사이 12.65%)한다. 이렇게 된 원인

은 첫째,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련의 그것은 '실패'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물론 사회주의 개혁의 실패가 소련에 대한 연구 관심을 감소시킨 한 원인이라는 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소련에 대한 연구 논문 비율이 1990년대 들어 전 시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주요한 원인의 하나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이에 비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1990년대 들어 더욱 밀접해지면서, 중국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2년 중국과의 수교,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 증가 등은 중국 연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중국과 소련 두 나라의 관계(또는 두 나라의 비교 검토)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34편(6.72%)임에 비해, 중국과 동구 사회주의권 또는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하나도 없다. 이는 그 동안 한국에서의 중국 연구가 소련을 제외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비교 연구 즉, '비교 공산주의 연구' 차원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 예를 들어, 비교 공산주의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자의 부족 등 -가 있겠지만, 연구 주제 선정이 학문적인 고려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 상황'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것 같다. 즉, 중국과 동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 중국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현실적인 필요성에 더 부합하고 이 때문에 양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소홀히 취급되었다.³⁾

셋째, 중국을 제외한 '중국문화권의 국가들' 즉, 대만, 홍콩 등에 대한 연구 논문이 중국에 대한 연구 논문과 비교해보았을 때 매우 적다(3.56%). 또 중국과 대만 두 나라를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도 소수(0.6%)에 불과하다. 이는 그 동안 한국 학계에서 대만과 홍콩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국내 학계에는 대만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비교적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대만과 홍콩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소홀하게 다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의 중국 연구가 정부 정책이나 현실적인 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진행되었고, 이 때문에 중국에 비해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비중이 작은 대만과 홍콩에 대한 연구가 적었다고 판단된다.

³⁾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권에 대한 연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 연구의 편의주의적 경향과 결합된 실용주의"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여러 번 지적된 적이 있다. 최명, 「중국연구현황」, 한국공산권연구회 편, 『한국공산권연구백서』(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1989), 43-57 쪽; 문홍호, 「한국에서의 중국연구동향: 『중소연구』에 발표된 중국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통권 50호(1991 여름), 275-300 쪽.

<표-2>『중소연구』 전체 논문의 연구자 출신 국가별 분류

(단위: 인원 수 / %)

국가 시기	한국	중국	대만	소련	미국	일본	홍콩	유럽	기타	총 계
1975~1980	62	0	0	0	11	1	1	0	0	75
	82.67	0	0	0	14.67	1.33	1.33	0	0	100
1981~1985	110	0	1	0	8	5	0	5	1	130
	84.62	0	0.77	0	6.15	3.85	0	3.85	0.77	100
1986~1990	108	3	0	10	13	2	0	8	4	148
	72.97	2.03	0	6.76	8.78	1.35	0	5.41	2.70	100
1991~1995	110	12	6	27	8	3	0	2	3	171
	64.33	7.02	3.51	15.79	4.68	1.75	0	1.17	1.75	100
총 계	390	15	7	37	40	11	1	15	8	524
	74.43	2.86	1.34	7.06	7.63	2.10	0.19	2.86	1.53	100

註 : 1) 연구자의 출신 국가는 국적이 아니라 활동 국가를 기준으로 했다.

2) 연구자 수는 연구자가 실은 논문을 모두 더하여 얻은 것이다. 예를 들어 세 편의 논문을 실은 사람은 세 번 계산되었다.

3) 2인이 한 편의 논문을 공동집필했을 경우 2인으로 계산했다. 이 때문에 논문 총수보다 연구자 총수가 더 많다.

<표-2>는 『중소연구』에 논문을 실은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하는 국가(출신 국가)를 분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분류를 통해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학계는 중국 연구 분야에서 외국 학계와 어느 정도로 학술 교류를 했는가를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해 볼 수 있다.

<표-2>에 따르면, 한국에서 초기 중국 연구를 주도한 연구자는 주로 한국과 미국 출신 - 이들의 다수는 한국 국적을 갖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다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과 소련 출신의 연구자 논문은 1985년까지 한 편도 실리지 않았다. 이렇게 학술 교류가 중국 및 소련과는 없고 주로 미국에 편중되어 있었던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 공산권 국가와 학술적인 교류를 할 수 없었던 '반공(反共)' 정책 - 때문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표에 따르면, 1986년 이후 특히 1990년대 들어 중국과 소련 연구자들의 논문이 등장하고 그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과 중국, 소련 연구자 사이의 학술 교류가 이 때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초기에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던 미국 연구자들의 논문은 1990년대 들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중국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 학계의 미국 학계에 대한 의존도가 최소한 양적인 면에서는 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경향은 뒤에 나오는 <표-7.1>과 <표-7.2>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다. 즉 이 두 표에 따르면, 중국 연구 분야에서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한국 연구자의 비중이 1990년대

들어 전보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도 한국의 연구자 배출 면에서 미국 학계에 대한 의존도가 전보다는 많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중국을 연구하는 한국 학계 전체가 이렇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 학계의 미국 학계에 대한 의존도를 순전히 ‘양적인 면’에서 평가할 수만은 없다. 즉, ‘질적인 면’ – 연구 성과에 대한 의존도 –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적인 면’에서 평가를, 한국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미국 연구 자료와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 IV 장 「중국 정치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의 변화」 참조).

그럼 양적인 면에서는 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되었을까? 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먼저, 중소연구소는 중국과 소련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소이고, 이 연구소가 학술교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도 주로 중국과 소련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1994년 현재 중소연구소가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은 모두 9개 인데, 이들 모두가 중국과 소련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관과는 정기적으로 학술 발표회를 갖고, 그 논문의 대다수가 『중소연구』에 게재되었다.⁴⁾ 이런 이유로 중국 및 소련 연구자의 논문이 『중소연구』에 많이 실리게 된 것이다. 두번째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소련의 개혁 정책 이후 연구 조건과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즉, 국내 학자들도 이제는 직접 중국 및 소련에 들어가 조사 활동을 별일 수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직접 중국 및 소련의 연구자들과 학술 교류를 하는 것이 더 손쉽고, 연구 활동에 유리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연구자들의 논문 게재 수는 감소한 반면 중국 및 소련 연구자들의 논문 게재 수는 증대되었다.

<표-3>은 『중소연구』에 실린 중국 관계 논문들의 연구 분야가 지난 20여 년 동안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우리는 <표-3>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⁵⁾

첫째, 『중소연구』에 실린 논문의 연구 분야는 정치, 외교, 경제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의 약 77%). 이에 비해 다른 분야 – 예를 들면, 소수민족, 언어, 과학기술 등 –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저조하다. 즉, 우리는 <표-3>을 통해 그 동안의 중국 연구가 주로 이 세 분야에 편중되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가 세 분야에 집중되는 현상은 다른 사회주의권 연구에서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55년-1987년 사이에 한국에서 발표된 소련 연구 논문은 정치(23.23%), 외교(30.16), 경제(14.13)에 편중(합해서 전체 연구의 약 68%)되어 있다.⁶⁾ 또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⁴⁾ 중소연구소 편, 전계서, 103-113 쪽 참조.

⁵⁾ 『중소연구』를 통해 중국 연구 분야의 변화를 살펴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잡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상당수가 각종 연구 지원금(가장 많은 부분은 교육부 학술연구 조성비)을 받고 연구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즉, 연구 지원금을 받고 하는 프로젝트 중에는 연구자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미 분야와 주제가 결정되고, 이 때문에 논문의 분야와 주제는 연구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 분야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이런 점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연구 분야와 주제 선정도 넓게 보면 한국 학계의 관심 분야와 크게 다를 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⁶⁾ 문수언, 「소련 및 동구연구 현황」,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편, 전계서, 27 쪽.

북한 연구도 이와 비슷하다.⁷⁾

이렇게 중국 연구가 이 세 분야에 편중된 주된 이유는, 중국에 대한 연구 주제 선정이 학문적 관심뿐만 아니라 현실적 상황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분야에 비해 이 세 분야가 정책 결정이나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한국의 학계가 중국 연구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기에는 아직도 연구자가 부족하다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 연구에서 정치와 경제 분야의 연구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현상은 중국 연구자가 비교적 많은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중소연구』를 근거로 할 때,

<표-3> 『중소연구』 중국관계 논문들의 연구 분야별 분류(한국 연구자¹⁾에 한함) (단위: 편수/%)

분야 시기	정 치	외 교	군 사	법 률	2) 경 제	사 회 / 문 화	교 육	소 수 민 족	3) 역 사	언 어	문 예	과 기	기 타	총 계
1975-1980	5	14	4	0	9	3	1	0	2	1	0	0	3	42
	11.90	33.33	9.52	0	21.43	7.14	2.38	0	4.76	2.38	0	0	7.14	100
1981-1985	10	15	2	1	12	0	1	1	3	1	2	1	3	52
	19.23	28.85	3.85	1.92	23.08	0	1.92	1.92	5.77	1.92	3.85	1.92	5.77	100
1986-1990	14	14	1	1	11	0	2	0	2	0	1	1	1	48
	29.17	29.17	2.08	2.08	22.92	0	4.17	0	4.17	0	2.08	2.08	2.08	100
1991-1995	24	9	1	2	12	4	0	0	0	0	1	0	2	55
	43.64	16.36	1.82	3.64	21.82	7.27	0	0	0	0	1.82	0	3.64	100
總 計	53	52	8	4	44	7	4	1	7	2	4	2	9	197
	26.90	26.40	4.06	2.03	22.34	3.55	2.03	0.51	3.55	1.02	2.03	1.02	4.57	100

註 : 1)여기서 말하는 "한국 연구자"란 한국 내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자를 지칭한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 등지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연구자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구 활동은 그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한국의 연구 성과'라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하 표에서도 동일하다.

2) '경제' 항목은 대내경제와 대외경제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외교' 항목에는 대외경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역사' 항목에는 1949년 이전의 중국혁명 등을 연구한 논문이 해당된다.

⁷⁾ 같은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한 연구 논문 중에서 이 세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8%라고 한다. 신정현, 「북한연구 현황」,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편, 전개서, 64쪽.

그 집중 정도가 비교적 심하는 차이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학계의 전반적인 상황과 집중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 및 기타 다른 국가 학계 전반에 대한 좀더 많은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 분야가 1990년대 들어 급증(1986~90년 사이 29.17%에서 1991~95년 사이 43.64%)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치 분야 논문이 급증한 것은 중국의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1980년대 후반기에 본격화된 중국의 정치 개혁, 각종 '민주화 운동'(1986년 말의 학생운동, 1989년의 '천안문(天安門) 사건' 등), 지식인들의 중국 정치 발전 모델에 대한 논쟁(1988~89년의 '신권위주의 논쟁(新權威主義 論爭)'), 중국 공산당 주요 간부들의 변동(호요방(胡耀邦)과 조자양(趙紫陽)의 퇴임)과 세대 교체 등의 사건과 변화가 중국 정치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우리는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가 1975년 이후 큰 변동없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외교 분야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들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분야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2. 중국 정치 연구 분야의 변화

<표-4>는 『중소연구』에 실린 중국 정치 관계 논문 중에서 한국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분야를 분류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의 중국 정치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⁸⁾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분야에서는 정치과정(20.37%), 정치체제(20.37%), 정치사상(18.52%)이 전체 논문의 약 60%를 차지한다. 즉 중국 정치 연구는 주로 이 세 분야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중국 정치와 관련된 정책결정(decision-making) 과정에 대한 연구 논문이 한 편도 없다. 이는 중국 정치 연구에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국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⁹⁾

⁸⁾ 누가 하든지 중국 정치 분야의 세부 항목을 결정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자의성'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어떤 논문의 경우에는 여러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분류가 더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만약 어떤 연구자가 다른 기준에 따라 정치 분야의 논문을 분류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자는 <표-4>에서 각 세부 항목에는 어떤 연구를 포함시켰나를 보여주기 위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⁹⁾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미국에서의 주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Kenneth G. Lieberthal and Michel Oksenberg, *Policy Making in Chin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Lampton, eds., *Bureaucracy, Politics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David Lampton, ed., *Policy Implementation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표-4>『중소연구』 중국정치 관계 논문들의 연구 분야별 분류(한국 연구자에 한함)

(단위: 편수 / %)

분야 시기	정치 사상	정치 제도 (기구)	정치 과정	정치 충원 (엘리트)	정치 문화 정치 사회화	정치 발전	정치 체제	정책 결정 과정	기타	총계
1975-1980	2 33.33	1 16.67	1 16.67	0 0	0 0	1 16.67	0 0	0 0	1 16.67	6 100
1981-1985	2 20.0	1 10.0	3 30.0	2 20.0	0 0	0 0	2 20.0	0 0	0 0	10 100
1986-1990	3 21.43	0 0	3 21.43	2 14.29	6 42.86	0 0	0 0	0 0	0 0	14 100
1991-1995	3 12.5	3 12.5	4 16.67	1 4.17	2 8.33	2 8.33	9 37.5	0 0	0 0	24 100
총 계	10 18.52	5 9.25	11 20.37	5 9.25	8 14.81	3 5.56	11 20.37	0 0	1 1.85	54 100

註 : 1) 정치제도에서는 <표-3>의 분류에 따라 군사제도를 제외했다.

2) 세부 항목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정치사상 : 모택동(毛澤東), 등소평(鄧小平), 사회주의 이념 등에 대한 연구
- ② 정치제도 : 공산당, 정부, 전인대(全人代) 등에 대한 연구
- ③ 정치과정 : 민중운동, 지식인 정치참여, 대중단체 정치참여, 파벌정치 등에 대한 연구
- ④ 정치충원 : 간부 선발·배경·순환, 갈등 등에 대한 연구
- ⑤ 정치사회화 : 대중단체, 학교, 언론 등의 정치사회화와 정치문화에 대한 연구
- ⑥ 정치발전 : 지역 정치발전, 민주화, 정치발전 모델 등에 대한 연구
- ⑦ 정치체제 : 정치체제 개혁(변화), 중소 정치체제 비교 등에 대한 연구
- ⑧ 정책과정 : 중앙과 지방의 관계, 중앙 및 지방 단위에서의 정책결정과 집행, 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
- ⑨ 기타 : 연구 방법론에 대한 연구

3) 총계 54는 『중소연구』에 실린 한국 연구자가 쓴 중국 정치 관계 논문의 총수다.

둘째, 정치사상에 대한 논문은 1975년 이후 시기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실렸다. 이것은 한국의 학계가 중국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과정에 대한 연구 논문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실리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민주화 운동', 지식인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에 대한 연구 논문은 1986년 이후에야 비로소 실리기 시작했다. 특히 그 전에는 한 편의 논문도 없다가 1986-90년 사이에 6편이 실렸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데,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변화된 중국 사회의 모습을 보

려고 하는 연구자의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논문은 1986~1990년 사이에 한 편도 없다가 1991년 이후 급증하게 되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5.1>『중소연구』 중국 정치 관계 논문들의 연구 분야별 분류(한국 연구자에 한함)

분 야 시 기	정치사상				정치제도(기구)*				정치과정							소 계			
	모 택 동	등 소 평	모 / 등 비 교	사 회 주 의	신 권 위 주 의	공 산 당	정 부	군 대	정 협	전 인 대	민 중 운 동	지 식 인	대 중 단 체	파 벌 정 치	대 중	계 급 정 치	지 도 력	문 학	
1975~1980	2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1	5
1981~1985	1	0	1	0	0	1	0	1	0	0	0	1	1	0	0	0	0	1	7
1986~1990	0	0	1	2	0	0	0	0	0	0	0	1	0	1	1	0	0	0	6
1991~1995	0	0	0	2	1	3	0	1	0	0	0	1	0	1	0	1	1	0	11
총 계	3	0	2	4	1	4	0	3	1	0	0	3	1	2	1	1	1	2	29
						10			8					11					

* 이 표의 정치제도 항목에는 군대제도(3편)를 포함시켰다. 또한 중국 연구 동향에 대한 논문(1편)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이 표의 논문 총수는 <표-4>에 비해 4편이 더 많다.

<표-5.1>에서 <표-5.3>은 정치 관계 논문들의 연구 주제를 세분화시켜 분류한 것이다.

<표-5.1>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먼저, 정치사상 연구는, 모택동 사상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초기에는 많았던 것에 비해 이후에는 주로 등소평의 정치 사상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정치제도 연구는 중국 공산당과 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정부(國務院)과 지방 정부)나 정치협상회의(政治協商會議)(정협), 특히 전국 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전인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중국 정치 연구는, 중국의 정치 개혁 이후 전인대와 국무원의 지위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당과 군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중국 정치에서 아직도 공산당과 군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과정 연구에서는 지식인 문제(지식인의 정치 참여, 공산당의 지식인 정책 등)와 중앙 단위의 '파벌 정치'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다. 전자는 중국의 개혁·개

방 정책 이후에 나타난 지식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에, 후자는 중국 정치를 중앙 단위의 ‘파벌 투쟁’을 통해 보려는 시도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중국 정치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던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에 대한 논문이 지난 20여 년 동안 상대적으로 적었다(2편)는 사실이다. 이는 1966-1995년 사이에 같은 제간지인 *China Quarterly*에는 문화대혁명에 대한 논문이 45편이나 실렸다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적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¹⁰⁾

그런데,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과정에서 1989년의 ‘천안문 사건’에 대한 연구 논문이 한 편도 없다는 사실이다. 중국 정치에서 ‘천안문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중소연구』에는 이에 대한 연구 논문이 한 편도 없다는 것이 “이상”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왜 이에 대한 연구 논문이 『중소연구』에 한 편도 없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먼저, 한국 학계가 ‘천안문 사건’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세워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을 증명 하려면 한국 학계 전반에 대해 더 조사를 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중국 연구자들이 이 사건을 ‘고의로 회피’했거나 또는 ‘위축’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연구자들이 중국 현지에서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중국 ‘당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절끄러운 주제는 가급적 피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면 『중소연구』를 발행하는 중소연구소가 중국 연구 단체나 기관과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앞으로 좀더 연구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표-5.2>에 따르면, 정치충원에 대한 연구 논문은 1980년대에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간부(엘리트)들의 출신 배경에 대한 분석에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의 정치개혁 중에서 간부(엘리트)의 ‘세대교체’가 중요한 과제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대교체를 통해 등장한 간부(엘리트)들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정치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 등의 이유 때문에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한편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에 대한 연구 논문은 여러 분야에 고루 분포됨을 알 수 있다. 또 정치발전에 대한 연구 논문 중에서는 중국의 ‘민주화 운동’과 중국 정치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에 들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이유 즉, 1986년 말의 학생운동과 1989년의 ‘천안문 사건’, 지식인들의 중국 정치발전 모델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다.

¹⁰⁾ 김성곤, 「한국에서의 문화대혁명 연구 현황」(『지역연구』, 분호) 참조. 물론 우리는 『중소연구』가 문화대혁명이 사실상 끝난 1975년도에 처음 발간되었다는 것, *China Quarterly*의 발행 기간이 『중소연구』보다 15년 더 긴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연구』 밖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도 그리 많지 않다 – 김성곤에 따르면 총 15편 – 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이런 주장을 충분히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표-5.2>『중소연구』 중국 정치 관계 논문들의 연구 분야별 분류(한국 연구자에 한함)

(단위: 편 수)

분야 시기	정치충원 (엘리트)			정치 문화/ 정치 사회화						정치발전			소계	
	간부 총원	간부 배경	기술 관료	일반	대중 단체	학교	언론	가족	농 민 의 식	중 소 비 교	지 방 정 치	민 주 화	발 전 모 델	
1975-198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1981-1985	2	0	0	0	0	0	0	0	0	0	0	0	0	2
1986-1990	1	1	0	0	2	1	1	1	0	1	0	0	0	8
1991-1995	1	0	0	1	0	0	0	0	1	0	0	1	1	5
총 계	4	1	0	1	2	1	1	1	1	1	1	1	1	16
	5			8						3				

<표-5.3>『중소연구』 중국 정치 관계 논문들의 연구 분야별 분류(한국 연구자에 한함)

(단위: 편 수)

분야 시기	정치체제			연구방법론	연구동향	소계	총계
	중앙과지방	체제개혁	체제안정				
1975-1980	0	0	0	1	0	1	7
1981-1985	1	1	0	0	0	2	11
1986-1990	0	0	0	0	0	0	14
1991-1995	2	6	1	0	1	10	26
총 계	3	7	1	1	1	13	58
	11						

<표-5.3>에 따르면, 정치체제 연구에서는 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도 역시 198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중국의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없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갈등, 중국 연안 지방과 내륙 지방의 갈등 등이 큰 문제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¹⁰⁾

마지막으로, 중국 정치 연구 방법론에 대한 연구 논문은 1975년에 한 편이 실린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없었다. 이는 중국 정치 연구 방법론에 대해 한국 학계가 무관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중국에 대한 현지 조사가 가능해지고 또 중국에서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한국 학계의 이에 대한 무관심은 앞으로의 중국 연구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¹²⁾

<표-6>『중소연구』 중국 대외관계(외교) 논문들의 연구 분야별 분류(한국 연구자에 한함)

(단위: 편 수 / %)

분야 시기	2) 대외관계 일반	UN 및 국제기구	1) 사회주의권	1) 자본주의권	제3 세계	대만	한국 및 북한	기타	총계
1975-1980	5 31.25	0 0	1 6.25	4 25.0	0 0	0 0	6 37.5	0 0	16 100
1981-1985	2 11.76	0 0	4 23.53	1 5.88	4 23.53	0 0	6 35.29	0 0	17 100
1986-1990	4 23.53	0 0	7 41.18	1 5.88	2 11.76	0 0	1 5.88	2 11.76	17 100
1991-1995	5 41.67	1 8.33	1 8.33	2 16.67	0 0	2 16.67	1 8.33	0 0	12 100
총계	16 25.81	1 1.61	13 20.97	8 12.90	6 9.68	2 3.23	14 22.58	2 3.23	62 100

註 1)사회주의권 관계는 주로 소련과의 관계이고, 자본주의권 관계는 주로 美日과의 관계이다.

2)이 표에서는 <표-3>과 달리 '대외관계 일반' 항목 내에 '대외경제관계'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이 표의 총수는 <표-3>의 '외교' 총수보다 10편이 더 많다. 그 밖에 '대외관계 일반' 항목에는 중국의 대외정책과 이념, 중국 개혁 이후 외교 정책의 특징 등에 대한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

<표-6>은 『중소연구』에 실린 중국 대외관계(외교)에 대한 논문의 연구 분야를 분류한 것이다. 중국 대외관계는 중국 정치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외교는 정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분야기 때문에 살펴보았다. <표-6>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 준다.

먼저, 중국 대외관계(외교) 연구 논문은 대외관계 일반, 중국의 대사회주의권(소련 중

¹¹⁾ 1990년대 들어 한국 학계에서는, 중국의 지역 연구가 중국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필승의 논문이다. 양필승, 「중국 연구의 과제: 지역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중국연구』(대륙연구소), 창간호 (1993년 별호).

¹²⁾ 한국 정치학 분야에서는 1990년대 들어,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김웅진 위음, 『방법, 방법론과 한국정치학: 경험과학연구를 중심으로』(한울 아카데미, 1994)를 들 수 있다. 한편 중국 정치 연구와 관련해서도 1990년대 들어 소장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비판과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판과 반성 중에는 비판의 '화살'을 '미국 학문 경향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경향'에 겨냥한 것도 있다. 이희옥, 「중국 연구 방법론 시론: 기존 논의의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연구의 모색」, 『중국연구』(한국외대, 중국문제연구소), 13집 (1992), 41-82쪽; 전병곤, 「중국 연구의 방법과 과제」, 『중국연구』, 15집 (1994), 177-204쪽.

심) 관계, 중국의 대한반도 관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논문의 69%). ◉에 비해 중국이 UN 및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은 한 편에 불과하고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대한 논문은 1990년대나 나타나고 그 수도 매우 적다. 이처럼 연구가 특정 분야에 편중된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이유 즉, 『중소연구』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또한 연구 주제 선정이 정책적 고려 및 현실 상황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에 대한 논문이 1986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1981~85년 사이 35.29%에서 1986~90년 사이 5.88%, 1991~95년 사이 8.33%). 이는 <표-1.1>에서 '中韓', '中北'에 대한 연구 논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경향과도 어느 정도 유사하다. 이에 비해 <표-1.2>에 따르면 '蘇韓', '蘇北'에 대한 연구 논문은 1986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흥미로운 이유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점점 더 밀접해졌고, 또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 데도, 『중소연구』에 나타난 연구 논문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실 상황의 변화 발전이 연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중소연구』에 나타난 이런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이르고, 이를 위해서는 전체 한국의 연구 경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소연구』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없고, 좀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다.

3. 중국 연구자의 변화

<표-7.1>과 <표-7.2>는 지난 20여 년 동안 『중소연구』에 논문을 실은 한국 연구자들이 어느 나라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했나 알아보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¹³⁾

<표-7.1>에 따르면, 한국에서 중국을 연구하는 전체 연구자 중에서 미국, 한국, 대만에서 최종 학위를 받은 연구자가 절대 다수(약 8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받은 연구자는 전체의 36.46%로, 이 결과만을 근거로 한다면, 또 단순히 연구자 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한국에서의 중국 연구는 그동안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학자들이 중심 역할을 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외 국가에서 최종 학위를 받은 연구자는 일본에서 2인, 유럽에서 10인, 기타가 6인으로, 일본보다 유럽에서 최종 학위를 받은 연구자가 더 많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한국에서 최종 학위를 받은 연구자는 1981년대 후 절대 수 면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7인 - 9인 - 12인), 비율 면에서는 1986~90년 사이에는 증가(21.88%에서 39.13%)했다가 1991~95년 사이에는 다시 감소(36.36%)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1986년 이후 전체 연구자 중에서 한국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비율이 계속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는 이를 통해 중국을 연구하는 한국의 연구자 중에서 1/3 이상은 이제 한국에서 최종 학위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즉

¹³⁾ 한국 연구자들의 신상에 대한 것은 『중소연구』 뒤에 있는 「필자약력」을 참고했다.

한국 내에서 훈련을 받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받은 연구자는, 비율 면에서는 계속 감소해왔고, 절대 수 면에서는 경향적으로 감소해왔나고 할 수 있다.

<표-7.1> 중국 관계 전체 논문의 연구자 최종학위 취득국가별 분류(한국연구자에 한함)

(단위: 편 수 / %)

국가 시기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중국	유럽	기타	총계
1975-1980	13	14	2	7	0	2	3	41
	31.71	34.15	4.88	17.07	0	4.88	7.32	100
1981-1985	7	15	0	3	0	5	2	32
	21.88	46.88	0	9.38	0	15.63	6.25	100
1986-1990	9	8	0	4	0	1	1	23
	39.13	34.78	0	17.39	0	4.35	4.35	100
1991-1995	12	10	0	8	1	2	0	33
	36.36	30.3	0	24.24	3.03	6.06	0	100
總 計	41	47	2	22	1	10	6	129
	31.78	36.43	1.55	17.05	0.77	7.75	4.65	100

註 : 1)위 분류는 한국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자에 한정했다.

2)중복되게 논문을 실은 연구자는 최초의 논문이 실린 시점과 기준으로 1인으로 계산했다. 따라서 총계 129는 『중소연구』에 중국관계 논문을 실은 한국 연구자의 총수이다.

3)전에 타국에서 연구활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옮긴 연구자는 그 시기를 시점으로 계산했다.

4)위 연구자 중에는 『중소연구』에 중국관계 논문을 실었지만, 중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연구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자 수는 이보다 적다.

5)기타는 최종학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국가에서 학위 취득없이 연구활동을 하여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이다.

둘째, 대만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는, 절대 수 면에서는 1981년-1990년 사이 감소했다가 1991년 이후 다시 증가했으며, 비율 면에서는 198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최종 학위를 한 사람은 1991-1995년 사이에 1인으로, 이들이 한국 학계에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까지에는 아직도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¹⁴⁾ 그러나 앞으로 좀더 시간이 가면 한국 학계 내에서는 대만에서 최종 학위를

¹⁴⁾이 1인은 중국인으로 한국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중국에 유학을 가서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연구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 많은 학생들이 유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면, 앞으로 2-3년 후에는 중국에서 최종 학위를 한 많은 연구자가 한국에서 활동할 것이다.

취득한 연구자보다 중국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많아질 것이다.

셋째, <표-7.1>에 따르면 한국의 중국 연구자 총수는 1986-90년 시기에 전 시기보다 오히려 감소했고, 1991-95년 시기에 들어서야 그전 수준을 회복하게 되었다. 『중소연구』에 실린 논문을 통해 살펴볼 때 나타나는 이런 연구자 총수의 감소 현상이 한국 학계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더 조사를 해보아야 할 과제이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지금으로써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표-7.2> 중국 정치 관계 논문의 연구자 최종학위 취득국가별 분류 (한국 연구자에 한함)

(단위: 편 수 / %)

국가 시기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중국	유럽	기타	총계
1975-1980	1	3	0	2	0	0	0	6
	16.67	50.0	0	33.33	0	0	0	100
1981-1985	2	3	0	0	0	1	0	6
	33.33	50.0	0	0	0	16.67	0	100
1986-1990	2	5	0	2	0	1	0	10
	20.0	50.0	0	20.0	0	10.0	0	100
1991-1995	7	7	0	4	1	1	0	20
	35.0	35.0	0	20.0	5.0	5.0	0	100
총 계	12	18	0	8	1	3	0	42
	28.57	42.86	0	19.05	2.38	7.14	0	100

註 : 1)위 분류는 한국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자에 한정했다.

2)중복되게 논문을 실은 연구자는 최초의 논문이 실린 시점을 기준으로 1인으로 계산했다. 이 때문에 <표-4>의 논문 총계(54)보다 위 표의 연구자 통계는 당연히 적다. 왜냐하면 일부의 연구자는 중국정치 관련 논문을 한 편 이상 실었기 때문이다.

3)총계 42는 『중소연구』에 중국 정치 관련 논문을 실은 한국 연구자 총수이다. 따라서 이 숫자는 현재 한국에서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대략적인 숫자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표-7.1>이 한국에서 중국을 연구하는 전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라면, <표-7.2>는 중국 정치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를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총계 42는 『중소연구』에 중국 정치 관계의 논문을 실은 연구자 총수로, 이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중국 정치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의 대략적인 규모를 추측할 수 있다.

<표-7.2>에 나타난 결과는 <표-7.1>에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즉, 한국, 미국, 대만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전체 연구자의 90.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의 비율의 <표-7.1>의 36.46%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42.86%). 이는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중에서 중국 정치

를 전공하는 연구자가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구자 총수는 1986~90년 10인에서 1991~95년 20인으로 100% 증가하고 있다. 경제나 사회 등 다른 분야에서의 연구자 수 증가를 조사해보아야 하겠지만, 1990년대 들어 한국에서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는 전보다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8>은 연구자의 최종 학위 취득 국가의 차이가 연구 주제 선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표-8>에 따르면, 우리는 연구자가 최종 학위를 취득한 국가와 연구 주제 선정에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의 경우, 연구 주제가 정치사상과 정치과정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총 17편 중 8편). 이에 비해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는 정치과정과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고(총 26편 중 13편) - 여기에 정치사회화와 정치문화에 대한 논문까지 합하면 총 26편 중 17편), 대만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는 정치사상에 비교적 편중되어 있다(총 9편 중 4편). 이는 『중소연구』에 실린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한국 학계 전반으로 일반화 시키기는 이로지만, 이 결과만을 놓고 말하면, 학문적 훈련을 받은 국가와 연구 주제의 선정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8> 연구자 최종학위 취득국가와 중국정치 연구주제 선정의 관련성 분류(한국 연구자에 한함)
(단위: 편 수)

분야 국가 \ 취득국가	정치 사상	정치 제도	정치 과정	정치 사회화/ 문화	정치 총원 (엘리트)	정치 발전	정치 체제	기타	총계
한국	4	3	4	1	2	0	3	0	17
미국	2	1	8	4	3	2	5	1	26
대만	4	1	0	0	2	0	2	0	9
중국	0	0	0	0	0	0	1	0	1
유럽	1	0	0	0	1	1	0	0	3
총계	11	5	12	5	8	3	11	1	56

註 : 1) 위 표는 중국 정치에 대한 논문을 썼던 연구자를 대상으로, 1편 이상 논문을 썼던 연구자는 같은 논문 수에 따라 중복 계산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위 표의 총계(56)는 <표-7.2>의 총계(42) 보다 많다.

2) 위 표의 총계(56)는 <표-4>의 총계(54) 보다 2가 많다. 그 이유는 2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이 2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학위 취득 국가에 따라 연구 주제 선정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우리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추측만 할 수 있을 때이다. 즉, 각국의 연구 풍토 - 연구 방법론 -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학계에서는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방법론을 중시하고, 정치과정이나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는 정치사상보다 이런 방법론에 더 잘 부합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한 연구자들은 이런 주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III. 중국 정치 연구 ‘접근법’과 방법론의 변화

1. 중국 정치 연구 ‘접근법’의 변화

하딩(Harding) 등 미국의 연구자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중국 연구는 ‘시기별’ 또는 ‘세대별’로 연구 주제, 이용 자료, 그리고 연구 접근법(approach) 또는 패러다임(paradigm)에서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한다.¹⁵⁾ 예를 들어, 1950~60년대의 경우, 주된 연구 주제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기본적인 조직, 구조, 정책 형성 과정, 이념 등에 대한 것이었고, 이 시기의 지배적인(dominant) 패러다임은 ‘전체주의(totalitarianism)’였다. 그런데 문화대혁명(1966~1976)이 일어나면서 엘리트 사이의 갈등과 사회적 긴장 등이 새롭게 부각되고, 또한 광범위한 홍위병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런 연구 경향에 변화가 생겼다. 즉, 주된 연구 주제는 이런 엘리트 갈등의 기원과 원인에 대한 규명, 이런 갈등이 사회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것이었고, 또한 전체주의적 패러다임이 의문시되면서 다양한 모델 – 예를 들어, ‘두 노선 투쟁 모델’, ‘파벌주의 모델’, ‘관료주의 모델’ 등 – 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연구 경향의 변화는 1976년 모택동의 사망과 ‘사인방(四人幫)’의 숙청, 등소평 체제의 등장 등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다.¹⁶⁾

한편 미국에서의 중국 연구가 이런 변화를 겪게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정치적 변화 – 공산주의 혁명과 신정부의 수립,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과 문화대혁명, 등소평 체제의 등장 등 –와 중국과 미국의 관계 변화, 미국에서의 연구 조건 변화 – 연구 지원금의 변화, 연구자의 변화 등 –, 이용 자료의 변화, 정치학 본파의 학문적 변화 – ‘행태주의’, ‘신제도주의’의 등장 등 – 등이 그런 요인이다.

그럼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의 중국 연구도 미국에서처럼 그런 연구 접근법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소연구』를 통해서는 미국에서와

¹⁵⁾ 미국에서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arry Harding, October 1982, "From China, With Disdain: New Trends in The Study of China," *Asian Survey*, 22(10), pp. 934~957; Chalmers Johnson, October 1982, "What's Wrong With Chinese Political Studies," *Asian Survey*, 22(10), pp. 919~933; Harry Harding, January 1984,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Toward a Third Generation of Scholarship," *World Politics*, 36(2), pp. 284~307; Harry Harding, "The Evolution of American Scholarship on Contemporary China," David Shambough, ed., *American Studies of Contemporary China* (Armonk: M. E. Sharpe, 1993), pp. 14~40; Nina P. Halpera, "Studies of Chinese Politics," David Shambough, ed., *American Studies of Contemporary China* (Armonk: M. E. Sharpe, 1993), pp. 120~137.

¹⁶⁾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는 최명, 「중국정치」, 김영국 편, 『현대정치학의 대상과 방법』(법문사, 1981), 221~245 쪽 참조.

같은 그런 연구 접근법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뚜렷하게 파악할 수 없다. 대신 그것과는 다른 연구 접근(법)의 변화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무아라 이름 붙이기는 힘들지만, 굳이 이름 붙이자면 ‘반공적, 정책적 접근(법)’에서 ‘객관적, 학문적 접근(법)’으로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까지 『중소연구』에 실린 논문들에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 또는 접근의 연구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반공적,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다. 이런 연구 논문들은 학문적 연구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의 연구 또는 ‘공산당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학문적 관심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서, 이런 연구 논문들은 주로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면에서도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은 한국의 중국 정치 연구에 카다란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의 논문에서도 ‘이념적 편견’ 또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은 여전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반까지의 논문에서는 ‘중국’이라는 용어 대신 대개 ‘중공(中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⁷⁾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런 ‘반공적,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논문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대신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논문들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 분야나 주제 선택에서는 여전히 현실적 상황과 정책적 고려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는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학문적인 차원에서 – 더 정확히는 학문적인 ‘분위기’에서 –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한국에서의 중국 연구는 미국처럼 그와 같은 접근법 또는 패러다임의 뚜렷한 변화를 겪지 않았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도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첫째, 전반적인 중국 연구의 상황과 조건 문제다.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에서의 중국 연구가 순수하게 학문적인 차원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빨리 잡아도 1980년대 초반 이후라고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런 연구 조건에서 어느 특정한 접근법 또는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으로, 전반적인 연구자 수와 연구 수준의 문제도 또한 이유가 되었다. 즉,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 정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고, 연구 수준 또한 아직 초보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배적인 연구 접근법이나 패러다임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¹⁸⁾

¹⁷⁾ 물론 이것을 연구자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종립적이고 학문적인 용어를 사용했어도, 어떤 ‘외압’이나 조건 때문에 그것이 편집 과정에서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¹⁸⁾ 이런 중국 연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명, 「중국연구 현황: 특히 사회과학적 연구를 중심으

둘째, 한국에서 중국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특수성이다. <표-7.1>과 <표-7.2>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 중국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크게 세 부류 즉,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한국 및 대만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미국 학계처럼 연구 접근법이나 패러다임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는 연구자는 주로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었고, 한국이나 대만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은 이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연구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중국 연구에는 지배적인 접근법 또는 패러다임이 나타나기 쉽지 않았다. 이는 유사한 학문적 훈련과 연구 분위기 속에서 중국정치를 연구하는 미국 연구자들과는 분명 다른 상황이다.

셋째, 미국에서의 연구 접근법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중국 정치 연구에서도 1980년대 들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중국 연구가 학문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1980년대 초반 이후였고,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떤 지배적인 연구 접근법 또는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런 미국의 연구 접근법 또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국의 연구자들 중에는 회의적으로 보는 이가 많았기 때문에, 설사 누군가가 미국의 연구 접근법 또는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어도 쉽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¹⁹⁾

로」,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편, 전계서; 전병관, 전계 논문 참조.

¹⁹⁾ 예를 들어, 최명, 「중국정치」, 김영국 편, 전계서, 242-245 쪽. 또 이희옥이나 전병관도 이런 미국의 접근법 또는 패러다임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이희옥, 전계 논문; 전병관, 전계 논문 참조.

한편 이들의 미국의 접근법에 근거한 연구에 대한 비판은 막연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가를 알기 힘들다. 예를 들어, 전병관은 다음과 같이 이런 연구를 비판한다.

“특히, 서구의 영향을 받은 연구자들이 중국 연구를 주도하고 있어 – 물론 이로 인해 중국연구의 수준이 일정 정도 향상된 면도 있지만 – 서구에서 이미 자체적인 반성을 보였던 방법론을 가지고 분석하는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그것은 중국 연구의 오류적 해석과 예측이라는 연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일본과 대만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서구의 방법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검토, 수용하는 작업이 앞으로의 선결과제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평가는, 한국의 중국 정치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평가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평가는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그 동안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에 기여한 측면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낮게) 평가하고 있어, 공정한 평가가 되기 힘들고, 또한 이 비판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바가 없어, 비판을 받는 입장이 이를 수용하고 개선할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전병관, 전계 논문, 201-202 쪽.

또 이희옥의 비판도 이와 유사하다. 즉,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학자들 중심으로 미국의 중국 연구 방법론이 부분적으로 실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 연구에 대한 내재적, 비판적 분석없이 주로 세련된 전체주의적 모델, 정치문화적 접근, 정치사회화 연구, 지식인의 동태를 다룬 엘리트 접근 등과 함께 외교정책 분석이나 국제관계적 분석에 경도되어었다.”라는 비판이 그 예이다. 이희옥, 전계 논문, 45 쪽. 그리고 이런 비판에 근거하여 이희옥은 중국 연구에 대한 ‘내재적 접근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희옥에 따르면 내재적 접근법이란 “사회주의 스스로가 설

2. 중국 정치 연구 방법론의 변화

미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는 지역 연구(area studies)로서의 자신의 특수한 지위와 본과학분으로서의 비교 정치(comparative politics as a discipline)의 요구 사이에서, 그리고 인접 학문(경제학, 인류학, 사회학 등)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교류를 지속하면서 발전해왔다. 그리고 그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연구 방법론을 세련화시켜왔다.²⁰⁾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 방법론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 정치학의 연구 상황과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자의 최종 학위 국가의 연구 상황이다. 먼저 전자를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는 한국의 정치학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즉, 한국 정치학의 연구 성과와 방법론을 흡수하고 또 그것과 갈등을 겪으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선 지역 연구로서의 중국 정치 연구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정치학계에서 분명한 자기 위상을 갖고 있었는가가 의심된다는 사실이다. 이를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지역 연구로서의 중국 연구가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은 빨리 잡아도 1990년대 이후라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한국 정치학계의 연구 성과나 방법론을 중국 정치 연구자들이 흡수하거나 비판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의미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정치학이 연구 방법론에 대해 그 동안 얼마나 깊은 관심을 보여왔나라고 하는 문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 정치학계가 연구 방법론을 깊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빨리 잡아도 1980년대 초반 이후라고 생각된다.²¹⁾ 이 때문에 한국 정치학의 연구 방법론이 중국 정치 연구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 방법론은 주로 연구자의 최종 학위 취득 국가의 연구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연구자의 최종 학위 국가가 어디인가에 따라 중국 정치 연구의 방법론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정한 이념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현실을 평가하고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희옥, 전개 전개 논문, 64 쪽.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 내부의 관점에서 중국을 파악하고, 이런 파악 이후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희옥, 전개 논문, 46 쪽. 그러나 이런 비판도 역시 전병곤의 비판처럼 구체적인 대안 제시 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²⁰⁾ 이런 갈등과 교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Bruce M. Koppel, 1995, "Refugees or Settlers?" *Area Studies, Development Studies, and the Future of Asian Studies*, East-West Center Occasional Paper: Educational and Training Series, (1), April: Yogesh Atal, "Arrivals and Departures: The Case of Political Science in Asia," David Easton, John G. Cunnell, and Michael B. Stein, eds., 1995, *Regime and Discipline: Democracy and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Scien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 249-268.

²¹⁾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981년도에 나온 김영국 편, 전개서다. 이후 1990년 들어 정치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김웅진 엮음, 전개서이다. 그밖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웅진, 1989, 『비교정치연구』, 탐구당, ——, 1992, 『정치학방법론 서설: 경험과학연구의 논리와 규분』, 명지사, 1992, 김웅진 외저, 1995, 『정치학 조사방법』, 명지사.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연구』의 논문을 통해 살펴본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첫째는 소위 '전통적 방법론'이라는 것으로, "역사적, 분석적, 내지는 서술적인 제접근"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는 엄격히 말해 "사회과학적 연구라기 보다는 '지식의 모집'에 머문 것으로", 중국 정치 연구의 이론화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고 말할 수 있다.²²⁾ 이런 방법론을 사용하는 연구자는 대개 한국이나 대만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다. 둘째는 소위 '과학적 방법론'으로,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엄밀하고 체계적인 연구 방법론을 지칭한다.²³⁾ 이런 연구 방법론은 대개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 사용해왔다. 예를 들어, 막스 베버(M. Weber)와 미헬스(Michels)의 '관료주의(bureaucracy model)'을 토대로, 문화대혁명을 모태동의 '반관료주의(anti-bureaucracy)' 운동이라고 해석하고, 이것의 겸증을 시도하는 최의철의 논문, 중국 정치과정이 모태동주의의 비관료적 통치('영구혁명'의 이념)와 공식적-관료적 통치사이의 모순에 의해 특징지워진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몇몇 지역의 인민공사(人民公社)에 대한 조사 자료를 통해 겸증하는 장경섭의 논문, 중국 엘리트의 정치과정을 '후원자-추종자(patron-client)' 관계를 통해 잘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겸증하려고 시도하는 금희현의 논문 등이 있다.²⁴⁾

한편 자료(data) 수집을 위한 경험적 방법 - 예를 들면, 중국 현지에서의 설문 조사(survey research), 면접 조사(interview) 등의 방법과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 방법 등 - 의 사용 여부를 검토해보자. 『중소연구』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할 경우, 1980년대까지는 이런 방법론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 연구자들이 중국 현지에서 이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이런 경험적 방법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8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홍콩 인터뷰' - 중국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주로 홍콩에서 인터뷰하는

²²⁾최명, 「중국학에 있어서의 자료와 방법론 문제」, 『중국연구』(『중소연구』의 전신), 창간호(1975), 6 쪽.

참고로, 필자는 이 두 가지 방법론 중에서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올바르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왜냐하면 두 방법론은 연구 주제, 자료,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두 방법론 중에서 어떤 것이 '사회과학 연구'에 더 적당한 것이면, 정치학 이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 평가를 한다면, 필자는 소위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것이 올바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²³⁾최명은 '과학적 방법론'을 Frederic Fleron Jr.의 용법에 따라 넓게 이해하고 있다. 즉, '과학적 방법론'이란 "과학의 철학, 추구의 논리학, 즉 체계적인 탐구를 가능케 하는 일련의 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최명, 상계 논문, 6 쪽.

²⁴⁾최의철, "Mao Zedong, Zhou Enlai and the 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 1982, 『중소연구』, 통권16호, 가을, 85-140 쪽; 장경섭, "Class Politics through the Family: Maoism and Rural Leadership Formation in a North China Commune," 1991, 『중소연구』, 통권51호, 가을, 121-141 쪽; 금희현, 1992/93, 「중국 엘리트의 갈등 분석과 후원자-추종자관계」, 『중소연구』, 통권56호, 겨울, 123-155 쪽.

것 - 가 한국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²⁵⁾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즉, 중국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마련되었고, 또한 중국의 연구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현지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런 경험적 방법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소연구』통권66호(「특집: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농촌문화와 의식구조의 변화- 사천성(四川省), 길림성(吉林省), 호남성(湖南省)의 현지조사를 중심으로」)에 실린 논문들이다. 따라서 1990년대 들어, 한국의 중국 정치 연구도 이런 경험적 방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IV. 중국 정치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의 변화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어떤 자료를 이용했는가? 다른 지역 연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국 정치 연구에서 어떤 자료를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자료는 단순히 연구 결과의 논거로 활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연구 주제 선택이나 연구 시작, 그리고 연구 결과 그 자체에도 커다란 연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와 관련하여, 자료의 문제는 시기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즉,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자료의 ‘부족’ 때문에 어떻게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가 문제였다면, 그 후로는 쏟아져 나오는 중국의 자료를 어떻게 통제(control)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어떻게 현지 조사 작업(field work)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뀌었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써, 이런 자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국 정치 연구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²⁶⁾

²⁵⁾홍콩 인터뷰와 중국 현지 조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artin King Whyte, "On Studying China at a Distance," Anne F. Thurston and Burton Pasternak, eds., *The Social Science and Field Work in China: Views from the Field* (Boulder, Colo.: Westview, 1983), pp. 63-85; Andrew G. Walder, "The Hong Kong Interview: An Essay on Method," Andrew G.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pp. 255-269.

²⁶⁾자료에 대한 통제 문제와 소개는 다음을 참조. Michel Oksenberg, "Politics Takes Command: An Essay on the Study of Post-1949 China," Roderick MacFarquhar and John K. Fairbank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14,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1: *The Emergence of Revolutionary China 1949-196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 549-590; Michel Oksenberg, "Establishing Bibliographic Control over Sources on Post-1949 Chinese Politics," forward to Kenneth Lieberthal, and Bruce J. Dickson, *A Research Guide to Central Party and Government Meetings in China 1949-1986*(revised and expanded edition) (Armonk: M. E. Sharpe, 1989), pp. xi-xxvi; Jae Ho Chung, "References and Source Materials in the Study of Provincial Politics and Economics in the Post-Mao Era: A Select List", *Provincial China*, No. 1(March 1996), pp. 2-8; Huai Yan, Suixhieng Zhao, "Notes on China's Confidential

『중소연구』에 실린 연구 논문을 근거로 살펴볼 때, 그 동안 한국에서 중국 정치를 연구한 연구자들이 이용한 자료는 많이 변화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의 논문들은 “중국에서 간행된 1차 자료의 이용이 저조하며 대부분 영미권의 2차 자료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다만 중국 중앙 단위에서 나오는 주요 일간지나 잡지 - 『인민일보(人民日報)』, 『광명일보(光明日報)』, 『홍기(紅旗)』, 『북경주보(北京週報, Beijing Review)』 -, 공간된 각종 문건이나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증대하였다.²⁷⁾ 그리고 이처럼 중국에서 나온 자료를 이용하는 추세는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 보편화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현지 조사 작업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자료를 ‘얻는 단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에 막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중소연구』에 실린 논문을 예를 든다면, 바로 앞에서 들었던 『중소연구』 통권66호 (‘특집: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농촌분화와 의식구조의 변화-사천성, 길림성, 호남성의 현지조사를 중심으로.」)의 논문들이다.

그런데 필자는 『중소연구』에 실린 논문들이 시기별로 어떤 자료를 이용했나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표-9>를 작성했다.²⁸⁾ 왜냐하면 그 동안의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

Documents,” *Th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No.4 (Fall 1993), pp. 75-92.

²⁷⁾ 문홍호, 전개 논문, 291 쪽.

²⁸⁾ <표-9.1>, <표-9.2>는 각 시기별로, 비교적 다양한 연구 분야의 논문을 선택해서 작성한 것이다. 이 표에 사용된 논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1975-80

김하룡, 「문화대혁명’에 있어서 극좌파 숙청에 대한 해석», 『중국문제』, 통권2호 (1976년 7월)

조재환, 신복룡, 「모택동의 민족주의」, 『중국문제』, 통권3호 (1997년 1월)

윤재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제고」, 『중국문제』, 통권7호 (1979년 4월)

유용구, 「중공통일전선의 전개 양상 분석」, 『중소연구』, 통권10호 (1980년 6월)

(2) 1981-1985

한창수, 「1979년 이후의 중공 정치체제 변화」, 『중소연구』, 통권13호 (1982 봄)

이병주, 「중공 민병제도의 연구: 1949년 정권 수립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통권22호 (1984 봄) 유세희, 「중공의 이데올로기적 변화: 모택동의 모사상과 등소평의 모사상」, 『중소연구』, 통권24호(1984/5 겨울) 최의철, “Mao Zedong, Zhou Enlai and the 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 『중소연구』, 통권16호 (1982 가을)

(3) 1986-1990

오명호, 「중국 정치엘리트의 순환과 충원」, 『중소연구』, 통권29호 (1986 봄)

이문규,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의 정치사회화 활동」, 『중소연구』, 통권35호 (1987 가을)

정재일,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성격과 이념」, 『중소연구』, 통권37호 (1988 봄)

총성의, 「중국의 지식인 정체」, 『중소연구』, 통권42호 (1989 봄)

(4) 1991-1995

금희연, 「중국 엘리트의 갈등 분석과 후원자-추종자관계」, 『중소연구』, 통권56호 (1992/3 겨울)

박병석, 「중국형 이데올로기 수정의 현재적 의미: 신권의 주의논쟁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통권59호 (1993 가을) 조수성, 「중국 농민의 신정치문화 추향분석」, 『중소연구』, 통권65호 (1995 봄)

이희옥, 「중국의 농민류동과 기층정권의 관계: 민공조 문제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통권66호 (1995 여름)

논문들이 이용 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전술’에 끝나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구체적인 이용 자료에 대해서는 별로 말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²⁹⁾

그런데 이와 같은 표의 작성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자료의 성격 분류 문제다. 어떤 자료가 1차 자료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표-9>에서처럼 일방적으로 나눌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연구 주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 벌어진 ‘민주주의 논쟁’이 연구 주제라고 한다면, 중국 내의 학술 잡지나 대중 잡지, 이를 논한 서적 등은 모두 1차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분류는 편의를 위한 유통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자료 선정의 자의성 문제다. 즉 각 시기별로 선택된 네 편의 논문이 그 시대의 연구를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각 시기별로 선택된 네 편의 자료는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필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최대한 여러 분야에서 논문을 선정하려고 했으며, 이런 선택과 분석을 통해 각 시기별로 이용한 자료의 윤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했을 뿐이다. 그러나 필자의 이런 노력이 자의성 문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용 자료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문제다. 이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방법이 시대별 이용 자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대별 이용 자료의 변화 과정을 대략적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표-9>에 나타난 것처럼, 1990년대 들어, 설문 조사와 면접 조사를 통해 얻은 1차 자료가 중국 정치 연구에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내부자료」도 1990년대 들어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표를 통해 지난 20여 년 동안 1차 자료에 대한 이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문’이나 ‘잡지’에 대한 이용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

2차 자료와 관련해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서 가공(번역)한 자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또한 일본에서 가공(번역)한 자료도 초기에는 많이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한국 연구자들이 중국에서 나온 1차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에서 가공(번역)된 자료를 대신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미국 및 일본의 가공(번역) 자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이용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한편 대만이나 홍콩에서 가공한 자료는, 1990년대 들어서 이용이 급속히 감소했지만 비교적 꾸준히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²⁹⁾『중소연구』에 실린 논문들의 이용 자료를 평가하고 있는 문홍호의 상계 논문도 예외는 아니다.

<표-9> 시대별 이용 자료의 변화 분류

(단위: 종류 수)

종 류 시 기	1차 자료						2차 자료									
	설문/ 면접 자료	신문/ 잡지	선집 (전 집) 류	문건 자료 집	중앙/ 지방 통 계 자 료	내 부 자 료	번역(편집)자료	대 만/ 홍 콩	미 국	일 본	한 국	중 국	대 만/ 홍 콩	미 국	일 본	한 국
1975-1980	0	5	2	2	0	0	2	4	7	0	1	1	0	1	1	1
1981-1985	0	13	4	2	0	0	1	12	1	0	3	3	0	0	0	1
1986-1990	0	20	5	4	0	0	6	0	1	0	7	0	1	3	0	0
1991-1995	1	32	7	4	2	1	0	1	0	0	0	0	0	0	0	0
소 계	1	70	18	12	2	1	9	17	9	0	11	4	1	4	2	
				104									57			

(단위: 편 수)

종류 시기	3차 자료						기타	총계
	중국	대만/홍콩	미국	일본	한국	유럽		
1975-1980	0	2	15	5	3	0	8	59
1981-1985	7	24	100	1	5	0	6	183
1986-1990	14	12	24	5	2	0	3	107
1991-1995	17	11	78	4	8	0	4	170
소 계	38	49	217	15	18	0	21	519
			337					

<자료 분류 기준>

1) 1차 자료

- ① 자신이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직접 취합한 자료 예) 설문 조사 자료
- ② 공산당이나 정부, 기타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정기 간행물
예) 『인민일보(人民日報)』 / 『해방군보(解放軍報)』 / 『홍기(紅旗)』 (『구시(求是)』)
- ③ 주요 지도자들의 선집류 예) 『모택동선집』 / 『등소평선』
- ④ 지난 주요 문건 등을 정리한 자료집 예) 『십삼대 이래 중요 문헌선편(十三大以來重要文獻選編)』

⑩ 각종 중앙과 지방의 통계 자료 예) 『통계년감』

⑪ 기타 공산당, 정부 등의 내부 자료 예) 『내부참고(内部参考)』 / 『참고요문(參考要聞)』

2) 2차 자료

① 1차 자료를 번역(번집)한 자료 예) 미국 - FBIS 영국-SWB/FE

② 중국内外에서 발간된 각종 공구서, 연감류 예) 일본-*China Directory*

3) 3차 자료 : 중국内外의 각종 연구 논문 및 서적

4) 기타 : 한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 등지의 신문, 소련의 연구서 등

<계산 방법>

1) 위 통계는 각 시기마다 네 편의 논문을 각각 계산한 후 모두 합하여 얻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 논문이 1차 자료 4, 2차 자료 8, 3차 자료 21이고, 나) 논문이 5, 4, 10, 다) 논문이 3, 7, 18, 라) 논문이 2, 3, 4라면 그 시기의 자료 총수는 1차 자료 14, 2차 자료 21, 3차 자료 51이다.

2) 1차 자료와 2차 자료는 같은 종류일 경우 한 번만 계산했다.

예를 들어, 가) 논문이 『인민일보』를 열 번 인용했어도 한번으로 계산했다. 따라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는 각 시기 네 편의 논문이 각각 사용한 자료의 종류를 더해서 얻은 것이다.

3) 3차 자료는 연구 논문과 연구서를 모두 하나로 계산해서 얻은 것이다. 따라서 3차 자료의 총계는 각 시기 네 편의 논문이 각각 사용한 자료를 모두 더해서 얻은 값이다.

4) 2)와 3)의 이유로 1차 및 2차 자료와 3차 자료의 이용 빈도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즉, 1차 및 2차 자료의 경우는 이용한 자료의 종류를 의미하고, 3차 자료는 이용한 자료의 편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공구서 등과 관련해서는, 역시 중국 자료가 시기가 지나면서 이용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자료 중에서는, 중국 자료(연구 논문과 연구서)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0-7-14-17). 이에 비해 대만이나 홍콩의 연구서나 논문에 대한 이용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2-24-12-11). 한편 미국 연구서나 논문은 시기에 상관없이 연구 논문이나 연구서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⁰⁾ 한국의 연구 논문이나 연구서에 대한 이용은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들어, 한국에서의 연구 성과도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발전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유럽의 자료는 한 편도 이용된 것이 없는데, 이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유럽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유럽의 연구 성과를 거의 참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³⁰⁾ 그런데 1981-85 기간에 이용된 100편의 미국 연구 논문이나 연구서 중에서 최의철의 논문이 72편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1991-95 기간에 이용된 78편의 미국 연구 논문이나 연구서 중에서 금희연의 논문이 70편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면, 미국 연구 논문이나 연구서에 대한 이용은 시기에 따라 큰 차이없이 꾸준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자료 이용의 변화를 총괄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자료에 대한 이용은 (1, 2, 3차 자료를 불문하고)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많아졌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현지 조사 자료와 <내부 자료>도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1990년대 들어, 한국에서의 중국 연구도 본격적으로 중국 자료를 근거로 한 연구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시기를 불문하고 한국 연구자들은 비록 중국 연구 성과에 대한 이용 빈도 수가 많아지고는 있지만, 미국의 연구 성과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가 그만큼 미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와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좀더 정확하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료 이용에 대한 결과를 <표-2>(연구자 출신 국가별 분류)와 연관시켜 살펴보면, 한국의 연구자들은 논문 발표를 통한 학자들간의 학술 교류는 중국 및 소련과 활발히 벌이고, 연구 성과의 이용 면에서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³¹⁾

V.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중소연구』에 실린 논문을 중심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진행된 중국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검토해보자.

먼저, 중국 연구 주제의 변화와 과제에 대해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대로, 한국에서의 중국 연구는 연구 대상 국가가 주로 중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중소연구』라는 잡지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밖의 다른 것 - 예를 들어, 연구 주제 선택에서의 '현실 상황'의 요구, '시류'에 편승한 연구 경향 등 - 도 또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에게는 연구 대상 국가의 다변화 즉, 중국과 소련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개혁을 같은 아시아 지역의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개혁- 1986년부터 시작된 '도이모이' 정책 - 과 비교 연구하는 과제, 중국의 개혁과 동구 국가의 개혁을 비교 연구하는 과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중국의 개혁을 베트남의 개혁과 비교 검토하는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두 국가는 유사한 역사적 경험 - 한자, 불교, 중화사상, 정치제도 등의 공유 - 을 갖고 있고, 유사한 사회주의 혁명 과정 - 소련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혁명 노선의 수립, 민족해방 투쟁과 사회주의 투쟁의 결합, 해방구 건설과 개릴라 투쟁 등 - 을 거쳐면서, 또한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비교적 일찍 사회주의 개혁 정책을 수행했다는 면 등에서 충분한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두 국가의 비교 연구는 이후 북한이 어

³¹⁾ 이런 면에서 앞에서 살펴본 '양적인 평가' 즉, 한국의 중국 연구자들은 양적인 면에서는 미국 연구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감소했다는 평가가 '질적인 평가'에서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에서의 중국 연구는 여전히 미국에서의 연구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그것은 전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떤 방식으로 사회주의 개혁을 진행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중국 연구 분야와 관련해서도 역시 연구 분야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연구는 주로 정치, 외교,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이에 비해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이 나루어졌다. 이런 연구 분야의 다변화는 우리가 중국 사회를 좀더 깊고 넓게, 또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연구 분야의 다변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전문 연구자의 확충과 물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 동안 많은 질적, 양적 성장을 해왔다. 즉, 연구 분야도 많이 다각화되고, 전문 연구자도 또한 많이 확충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경우, '기초적인 연구'에 충실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중국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데도 아직 연구가 미진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먼저, 중요한 중국의 정치적 사건 -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천안문 사건(1989)'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약진운동과 '천안문 사건'에 대한 연구 논문은 『중소연구』에 단 한편도 실리지 않았고,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도 극히 부족하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중국 정치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우리가 중국을 이해나는 데 꼭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두번째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변화된 정치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변화된 국무원의 위상과 역할, 전인대(지방 인대), 전국 정협(지방 정협)의 현재 위상과 기능 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중국 정치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 분야다. 세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는 중국 소수 민족에 대한 연구, '중국문화권 지역'(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분야의 연구는 모두 중국의 통합과 통일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분야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자료의 통제 문제와 연구 방법론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연구가 요망된다. 특히 국내에서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이 문제를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국 정치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연구' 연구와 함께, 좀더 심층적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 과제도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중국 지역(지방) 단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중국의 지방 정치는 반드시 중앙 정치와 함께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즉, 중국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역적 특수성은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수행한 이후 소수 민족 문제와 결합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 연구자의 이런 '지역(지방) 단위 연구'에 대한 관심 촉구는 사실 늦은감이 있으며, 우리는 이런 지역(지방) 단위에 대한 연구를 충실히 수행한 이후에 '중국 전체'에 대한 올바른 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²²⁾ 둘째, 이와 관련된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소연구』

²²⁾ 지역 연구에 대한 관심 촉구는 양필승, 전재 논문 참조.

에는 이에 대한 연구 논문이 세 편 살펴있지만, 1990년대의 논문 두 편은 아직 시론적인 것으로 본격적인 연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중앙과 지방의 종적 및 횡적 관계에 대한 더 깊고 더 세밀한 연구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³⁹⁾셋째,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념의 변화도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중국 정치 사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모태동파 등소평 사상, '중국식 사회주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상이 실제 중국 사회에서 지배 이념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사상이나 이념 말고, 중국 국민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또는 영향력이 매우 큰 이념 - 예를 들면, '근대화론'(또는 '개발독재론'), '대중화경제권건설론', '신민족주의(중화주의)'·등 -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밖에도 중국의 개혁·개방이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 - 예를 들면, 중국 농촌의 농민들은 개혁·개방 이후 어떤 형태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가, 정부나 공산당은 또한 어떤 형태로 농민들을 정치과정에 참여시키는가 등 - 도 지금보다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이런 '기초적인 연구'와 심층 연구가 쌓이면서,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는 내실 있는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와 관련해서, 우리는 또한 1949년 이전의 중국 정치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정치학자로서 1949년 이전의 중국 정치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는 매우 드물고,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역사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 중국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949년 이전의 중국 정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 중국 정치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가 이 시기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 역부족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동안 한국 동양사학계에서 이룩한 중국 역사 연구의 성과를 어떻게 흡수하여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 문제를 살펴보자. 우리가 『중소연구』에 논문을 실은 연구자 수를 근거로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적다고 또는 많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덮어두고, 대신 우리는 한국에서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학문적 훈련을 마쳤는가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대개 미국, 한국, 대만 - 이후에서는 중국도 추가 - 에서 학문적인 훈련을 했다. 즉, 한국의 연구자들은 학문적 훈련이 다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연구 집단들은 지난 연구 과정에서 연구 접근법과 연구 주제 선택, 자료의 이용 면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서로 융합되기보다는 독자적인 흐름을 형성해왔다. 그 결과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는 어떤 하나의 뚜렷한 흐름을 형성할 수 없었다. 물론 학문적 훈련 배경이 다른 학자들이 하나로 융합될 수 있고, 또 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³⁹⁾ 전병곤도 "향후 경제개발 이익의 분배문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관계 발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 분야가 중요한 연구 과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전병곤, 전계 논문, 203쪽.

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볼 때, 연구자 집단의 ‘독립’과 ‘분화’는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고 생각되며, 우리는 앞으로 이런 다양한 연구 집단의 존재가 ‘장점’이 되어, 한국의 중국 정치 연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연구 방법론과 자료 이용에 대해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방법론은 크게 양분 – ‘전통적 방법론’과 ‘과학적 방법론’ – 되어 있다. 그리고 『중소연구』만을 근거로 한다면, 연구자들의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중국 연구 방법론에 대해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해서는, 1990년대 들어서 경험적인 방법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한편 자료의 이용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어, 1990년 들어서는 중국의 1차 자료 이용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한다. 즉, 지금까지의 자료 수집과 이용이 주로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연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과 이용에서,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벗어나 ‘집단적 차원’의 노력 – 자료 수집의 체계화와 이에 대한 연구 자금의 지원 등 – 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The Contemporary Study of Chinese Politics in Korea : focus on *Sino-Soviet Affairs*

Young-Nam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valuates the study of contemporary China in Korea for the last two decades. For this purpose, a critical review was conducted on the articles that appeared in *Sino-Soviet Affairs*, a leading journal in the field. The assessment was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with regard to the subject of inquiry, most of the articles evaluated studied China in its own right or focused on China's external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and the Korean Peninsula. One important agenda for future research is to do comparative studies of China and other socialist states. Additionally, a predominant majority of the articles evaluated dealt mainly with political, economic and diplomatic issues, while largely neglecting other key themes of research. Furthermore, there is an acute need for more research on major events like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Tiananmen Incident.

Second, the Korean community of contemporary China studies is best characterized by pluralism. In terms of backgrounds, scholars were trained mainly in the United States, Taiwan and Korea. And these differences contributed rather significantly to the variations in their approaches, use of source materials, and so on. How such a pluralistic approach will affect the process of knowledge accumulation in the field remains to be seen.

Third, Korean scholars of contemporary China still seem to lack sufficient interest in the methodological issue. Generally speaking, traditional Sinological methods (historical and descriptive) continue to dominate over more "scientific" methods. With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with China, however, there seems to have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extent to which primary data and fieldwork are utilized.